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 가정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서 병 숙

I. 서 론

가정은 창조적 삶의 원천이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요,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기르고 삶을 마감하는 곳이다. 또한 가정은 마치 성곽과도 같아서 외부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에 여러가지 문제와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 이혼율의 증가, 세대간 갈등의 증폭, 가정내 폭력의 증가, 존속살해, 자녀유기, 미혼모 증가, 청소년 가출의 증가, 근친상간의 빈번한 발생, 자살, 약물중독 등(김재은, 1994) 수많은 문제들이 모두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가정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가정이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즉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가족내의 역할과 의무수행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 개념의 가족기능론자들은 가족원 상호간 자기 지위에 합당한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가정문제의 해결방법은 전통적 가족 기능, 역할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이 건전해 지기 위해서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이 요구된다는 논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오늘날에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틀에서 벗어난 가족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특유의 형태가 가족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리고 가정내에서 가족의 심리사회적 기능 및 성장을 위한 건전한 분위기가 제공된다면 즉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들거나 괴로울때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다면 가족 단위가 어떠한 유형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기능론에서 벗어나 현대 가정에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능을 인지해야 한다. 새로운 기능이란 관계적 기능을 의미한다. 우리는 부양받고 부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우리는 보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친밀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생활을 한다. 우리는 선대의 유물(의·식·주) 등 생활관행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대와 함께 기쁨을 추구하고 서로 보살피며 그러한 기쁨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시킨다. Maslow도 우리세대를 선사이래 최초로 관계의 질에 초점을 두는 세대라고 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이를 예방 또는 치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가정의 나약함, 역기능, 해체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정의 긍정적 측면 즉 가정의 건전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병리적 증세를 보이는 가족이나 문제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료를 갖고 건전가정을 추론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모든 가족들은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자료보다 부적절한 자료에 근거한 지침만을 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가정의 긍정적인 측면, 즉 가정의 건전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해야할 시기에 와 있다. 그러므로써 현대 가정에 만연해 있는 제반 가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더 나아가 건전가정을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는 방향 내지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건전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 제측면에서 견해를 같이 하나 건전가정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개별 가족원뿐 아니라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주지하고 건전한 가정을 확립, 유지하기 위해 개별가족차원에서는 건전가정 수칙을, 사회에서는 교육을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건전 가정의 개념

건전가정의 개념은 여러 종류의 가정문제가 발생하자, 그 가정문제의 발생이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린데서 기인하였음을 인식하면서 제시된 개념이다.

이회승의 국어사전에서는 健全이란 '건실하고 완전함', '건강하고 병이 없음'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가정에 적용하면 '건실하고 완전한 가정·건강하고 병이 없는 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Parsons(1959)는 건전한 가치있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능력상태라고 정의하였다.

Offer & Sabshin(1966)은 건전성을 정상성 혹은 평균성등의 개념보다는 병리가 표출되지 않는,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기능수행을 적절하고 이상적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건전가정에 대한 연구는 1962년 Otto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후 Stinnett등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tto는 가족의 건전성을 가정의 변화하는 구성요소이며 최종적인 산물이라 하였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며 상호관련된 역동체로서 가족원 개개인의 능력, 수용력, 장점 등이 가족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되고 발전된다고 하였다.

Stinnett(1979)는 건전가정이란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며 가족원 상호간에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日本 家政學會 家庭經營學部會 關東地區에서 1979년 현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바 가정의 건전도는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측면의 문제에 대응하여 가정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여러측면의 노력의 정도[強弱]'라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현실적, 관계차원적, 체계적 측면에서 건전가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건전가정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이다.

III. 건전 가정 육성의 필요성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단위로 우리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리하여 가족원 개개인에게 사회적·문화적·도덕적 가치를 전수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과거와는 달리 가족 기능상에 상당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가족은 그 효율성과 가족구성원의 육구를 잘 충족시켜주는데 있어서는 어느 기관과 비교될 수 없다.

건전가정이 개별가족원의 정서적 안정, 정신건강, 행복증진에 중요하다는 데에는 못 견해를 같이 한다. 이와같은 건전가정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원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Otto(1979)는 모든 가족에게 있어 주요한 강점은 각 구성원들에게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능력이라 하였다. 결국 그는 모든 가족에게는 잠재된 강점과 능력이 있음을 가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원 각자의 경험을 증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족은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위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핵심이 되는 체계로서 사회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하며 복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국가사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이로써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가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가사회가 가정을 건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정생활의 질이 국가의 부강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로마, 그리스, 이집트와 같은 거대한 사회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패턴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들의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가정은 건전했으며 높은 가치가 주어졌으나 반면 가정생활이 악화되고 가치가 없고 사회가 극도로 개인주의가 되었을 때 사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 사회의 건전한 유지 및 발전이 건전한 가정의 유지 및 발전에 달려있음을 감안할 때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 건전가정의 육성은 국가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IV.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대책

1. 가정차원

가족은 건전성과 나약성을 동시에 갖는다. 가정에서는 건전성은 더욱 복돋우고 약점은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한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들마다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 또는 철학등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을 보호 유지하고 있다.

건전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활주기 단계마다 가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다양한 가족에게 어느 틀에 묶인 기준을 설정해 준다는 것이 무리가 있겠으나 건전가정이 어떠한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자신이 생활하는 자세에 변화,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건전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가족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생활주기 단계별 과업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신혼기

- (1) 부모와 심리적으로 분리
- (2)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확보
- (3) 가사역할의 분담

- (4) 조화로운 성생활
- (5) 배우자의 부모와 원만한 관계
- (6) 가족계획에 대한 의견일치

2) 첫자녀 출산기

- (1) 아내의 임신에 의한 심리적 불안정에 대한 남편의 이해
- (2) 자녀 출산후 유아에 대한 관심 집중은 남편을 고독하게 한다는 것을 아내가 이해
- (3) 자녀 출산으로 가사노동 및 가정 경제적 부담의 증대에 대한 대비
- (4) 육아, 교육방법 등에 대한 견해 일치

3) 자녀 성장기

- (1)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 자녀의 반항, 진학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2) 권태기에 신선감을 투입하려는 노력

4) 자녀 독립기

- (1) 자녀의 장래목표 설정이 가족의 합의하에 형성
- (2) 자녀와의 심리적 독립
- (3) 갱년기에 대한 이해
- (4) 노후설계

5) 노년기

- (1) 퇴직후 경제적 수입의 가능
- (2) 동, 별거의 기혼자녀와의 원만한 관계 수립
- (3) 삶의 보람

이상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나 성인으로서 인간은 건전가정의 틀에 맞추어 매 주기마다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자신이나 자녀에게 가족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상호협동하는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모두 聖人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의견대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성이 요구된다.

가정내 가족원의 행동이 문화에 따라 결정되고 가족들도 모두 다양하지만 건전가정에 대해 일반적인 준거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건전 가정 수칙 -

- 1) 다양하고 원활한 Communication을 하라.
 - 가족간에 대화를 충분하게 나누고 주의깊게 경청하라.
 - 감정표현을 명확히 하라.
 - 일상생활에 유모와 재치를 보여라.
 - 공통의 관심사를 갖도록 노력하라.
 - 가족 각자의 견해차를 인정하라.
 - 가족에게 몰입하라(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버리고).
- 2) 가족간에 상호작용을 하라.
 -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라.
 - 서로 신뢰하라.
 - 서로에게 늘 감사하라.
 - 많은 시간을 함께 하라.
 - 가족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라.
- 3) 의도적, 비의도적인 가정교육을 하라.
 - 타인을 존중하도록 가르쳐라.
 - 가족 가치관이나 도덕관을 가르치고 강조하라.
 -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 가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라.
 - 가족내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
 - 가족내 변화(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들. 예 ; 가족원의 사망, 결혼, 부모의 이혼 등)를 수용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라.

2. 국가, 사회 차원

국가사회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그리고 법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 시점에서 국가사회에서 가족 및 그 구성원에게 제공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가족 스스로 건전가정을 이루는데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것이다.

제종의 가족문제가 나타나면서 점차 의사소통 훈련과정이나 가족생활 교육과정등을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점차 사회에 보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이 변화하고 있음과 사회문화가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를 해결하는데에 책임이 있음을 국가차원에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을 훈련이나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과 요원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볼 때 가정생활에 대한 구체적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과 요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생활교육을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돕기위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생활을 강화시키는 평생발달적 교육이라 정의 할 때, 이를 위해서는 각 가족생활주기에 적합한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내용 차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가족정책이라기 보다는 사후 치료의 성격을 띠는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또한 정책차원에서 가족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 구호사업은 다양하게 시도 되고 있으나,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족문제를 예방, 치료하려는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기울여졌고 따라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과 전문요원이 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볼때 가정문제를 치료 상담할 수 있는 전문적 기관과 상담자 양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기관과 요원차원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결혼 상담소, 가족 상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고 전문가가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노인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노령 퇴직시 생활보장을 위한 개보협화와 정년연장제를 추진해야 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가족(확대가족)에 대하여 세제혜택(소득공제)을 주거나 노인

에 대하여 정액부양비와 영양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노인을 모시는 가족을 위하여 day care center가 마련되어야 한다.
- * 가족해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산아제한, 가족계획사업의 실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 * 취업여성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나 유아원등의 아동복지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학교 아동의 하교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V. 맺는 말

건강가족이 개별가족원의 정서적 안정, 정신건강, 행복 증진에 중요하며 사회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견해를 같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건전가정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것은 최근의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을 연구함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가정내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가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가정 건전도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가정내의 긍정적 측면은 가정내의 가족들에 의해서도 거의 무시되어 왔고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가정내의 질적인 측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정내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게 고무하고자 하며 국가차원에서는 가족의 교육, 정책을 시행하여 가족을 건전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건전가정을 유지토록 각 가정을 고무하는 건전가정 수칙을 개발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에 교육프로그램과 제반정책을 요구함으로써 가족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가족차원에서는 건전가정 수칙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의 강점, 건강을 가족 스스로 평가내리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고

국가차원에서는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고무할 수 있는 서비스, 즉 교육과 상담 차원의 제도를 체계화시킬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하며 가정생활의 기능적인 측면을 파괴함 없는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질을 고양시킴으로써 개별가족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문제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Avis, J.M.(1985). The of functional family therapy : a feminist critique. *JMFT* 11(2) : 127-138.
- 2) Bloom, B.L.(1985).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 3) Brigman, K.M.L., Schons, J.& Stinnett, N.(1986). Strength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 A Study of Strong Family in Iraq. *Family Perspectives* 20(1) : 61-73.
- 4) Curran, D.(1992). Traits of a Healthy Family. Harper. San Francisco Feldman, M & M.
- 5) Doane J.A., Hill, W.L., Kaslow, N & Quinian, D. (1988). Family system functioning : behavior in the laboratory and the family treatment setting. *Fam Proc* 27 : 213-227.
- 6) Gershwin, M.W. & Nilsen, J.M.(1989). Healthy families-forms and processes. Toward a science of family nursing. Gillis, C.L., Highley, B.L., Roberts, B.M. & Martison, I.M.(ed.).
- 7) Kinston, W., Loader, P.& Miller, L(1989). Quantifying the chinal assessment of family health. *JMFT* 13(1) : 49-67.
- 8) Loveland-Cherry, C.J.(1989). Family health promotion and health protection. Nurses and family health promotion : concepts, assessments and intervention. Bomar, P.J.(ed).
- 9) Richards, L.N. & Schmiede, C.J.(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 parent families :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R* 42 : 277-285
- 10) Stinnett, N., DeFrain, J., King, K.Lingreen, H., Rowe, G., Van Zandt, S. & Williams, R.(1982). Family Strength 4 : Positive Supportsystems. Lincoln, NE : Univ. of Nebraska Press : 5-14/457-472 /473-474.

- 11) Travitan, M.L., Lubiner, J., Green, L.A., Grebst-
gein, L.C. & Velicer, W.F.(1987). Dimensions of
Functional Family. *J. of Soc. Behav. Pers* 2 : 115-
126.
- 12) 日本家政學會 家庭經營學部會 關東地區 横山光子,
大森和子(1979). 新しい家庭生活を老える - 家庭
生活의 健康度 調査 報告 -. 소화 45年.
- 13) 윤 진(1983).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 : 부와 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연세대학교.
- 14) 정길수(1989). 장애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가족
기능에 관한 연구. 충남대 간호학과 논문.

健全家庭 育成을 위한 實踐的 課題

— 家庭倫理的 측면에서의 接近 —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지 영 숙

I. 序 論

現代社會는 人間性과 倫理意識을 상실한 시대라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産業社會 이전에는 傳統的인 倫理意識이 人間行爲의 준거가 되었으며 道德的 規範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現代 産業社會에 들어와서 그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社會構造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生活構造와 生活樣式도 급속히 변화되었고 전통적인 倫理意識과 도덕률은 그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많아지면서 기존 倫理意識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덧붙여서 工業化와 부합하는 제 2의 물결속에서 요구되는 기계화, 자동화, 계량화, 물질화, 규격화, 신속화 등은 특히 人間의 倫理的 反省의 기회를 빼앗아 갔고, 또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유행하게 되자 哲學에 바탕을 둔 倫理는 一般 教育의 思想史에서나 다루어질 뿐(道德的 추론의 효용성과 道德的 眞理의 存在에 대해서는 檢證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倫理라는 것 그 자체를 무용지물로 보는 풍조에서도 오늘날 倫理意識의 不在에 직면하게 되었다(秦教勳, 1992).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타락과 해체와 갈등과 불신은 가정과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제 가정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선견한 가치판단을 문제의 기저로 삼고자 할 때 (특히 실천적인 면에서) 倫理에 대한 접근은 필연적 과제가 되었다.

人間은 자기 자신을 創造하는 과제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다(Max Scheler, 1947(재)). 그래서 人間은 自然과 文化를 통합한 그의 삶의 주체로서 自己를 완성할 책임이 있고, 生活環境으로서의 건전한 文化를 創造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그리

하여 그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文化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또 그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또한 그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갖는다.

가정은 바로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하는 一次的 生活體系로서 個人과 社會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개인에게는 욕구충족과 인간개발을, 사회에 대해서는 生活文化의 기본집단으로서 기능하고 상호작용하는 단위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상실된 人間性과 倫理性을 회복하는 길은 우선 家庭倫理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가정은 개인윤리뿐만 아니라 社會倫理의 훈련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또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영원한 學校”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제 건전가정의 육성이라는 대주제에 대해서 倫理問題에 대한 반성을 진지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倫理의 意味

倫理라는 말은 人間관계의 理法을 가리키는 말이다. 윤(倫)자는 무리, 또래, 질서의 뜻을 담고 있으며 리(理)자는 옥(玉)을 다듬는다(治玉也)의 뜻을 가지고 있다(秦教勳, 1992).

Ethics는 그리스어의 ethos(동물의 서식장소, 집)에서 유래하였고 나중에는 사회의 풍습, 개인의 관습, 품성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제 倫理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道德規範의 총체를 의미한다¹⁾. 이때 倫理的이라는 規範의 根據는 人間의 本性에 기초하여 무엇이

價値가 있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느끼고 판단하는 價値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倫理는 마음의 論理이고 마음의 秩序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倫理的 價値들이 人間을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때(Grisez와 Shaw, 1980(재)) 倫理的이라는 것은 人格과도 관련되어진다. 그래서 人格 價値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행위를 요구하며 또 그렇게 해야한다는 명제를 갖게 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서 근신하고 절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倫理가 주는 의미는 의식적으로 자기 반성을 통하여 자기제어를 해야 하고 자기를 극복해야 할 존재로서 인간의 정신생활과 행위를 수반하는 자기 극복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나와 너”가 어울려 살게 마련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습관, 풍속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윤리 도덕이 정립되며 이것이 한 집단 한 사회 국가를 지탱해가는 질서이고 한 집단을 바르게 전개해 가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社會化의 제 1차적인 장소로서 家庭倫理가 의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반성과 자기 극복의 내적 통제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가정적으로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예의바른 생활을 가능케하는 질서이고 조화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친구, 친척, 지역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며 또한 정치, 경제, 생물, 자연환경으로까지 그 윤리적 가치관은 확대 적용되는 정신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III. 傳統倫理의 考察

倫理 道德은 갑자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삶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으며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기에 人間은 傳統속에서 實存 可能性을 가지고 살아가는

1) 倫理와 함께 道德과 規範이 사용되는데 道德이란 말은 옳은것과 그른것, 좋은것과 나쁜 것에 관한 가치판단을 하는 인간의 능력을 뜻하고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規範이란 말은 무엇을 재는 자(尺度)를 뜻하고 질서와 행위의 규칙 과 행위의 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文化的, 歷史的 存在이다. 그래서 傳統은 人間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며 삶의 뿌리로서 그 위에서 또다시 文化를 創造한다. 특히 實踐倫理로서의 道德的 規範은 傳統文化를 기반으로하지 않을 수 없다(秦教勳, 1992).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 규범을 전통문화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非合理的, 非效率的이며 守舊的이고 保守的이라고 한다. 또 앞만보고 달려가도 시원치 않은 세상에 삶을 거슬러 뒤로 가느냐고도 한다. 그러나 人間의 歷史는 거슬러 갈 수도 없으려니와 人類의 精神史에서 의미있는 改革과 發展은 그 기본적 정신을 傳統文化에 두고 새로운 실현을 지향하였음을 상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통은 실존적으로 재발견된 가능성을 현재에 되살려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새로이 파악된 가치들을 뜻깊게 형성하려는 노력을 할 때 傳統倫理의 역사적 상대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傳統倫理를 개괄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백미러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행동기준을 삼고자 하는 것과 같은 뜻에서다.

1. 三綱五倫論

儒敎文化에서 倫理의 근간은 家庭倫理이다.

가정이 곧 나라요 우주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임금은 아버지와 같고 백성은 자녀와 같은 것이요 아버지는 하늘과 같고 어머니는 땅과 같은 것이다. 가정은 작은 국가이고 우주는 큰 가정이다. 가정을 떠난 사람은 마치 국적을 잃은 백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교적 삶에서 結婚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祖上을 받들고 子孫을 이어가는 것이다(琴章泰, 1980). 이러한 家庭觀에 따라 倫理規範은 첫째, 親子中心의 父子의 軸이 가정의 主脈을 이루며, 둘째, 男과 女는 從屬의 관계로서 女性은 男性에게 예속된다. 셋째, 子女는 독립된 인격체이기 보다는 父母의 從屬的 存在로서 父母에게 예속된다. 넷째, 가정의 행사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조상숭배로서 孝道는 산사람에 대한 禮라면

祭祀는 죽은자에 대한 禮式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 가정윤리는 家長을 頂點으로 父-子, 兄-弟, 男-女, 年長者-年下者로 이어지는 엄격한 계층적 신분체계를 이루고 윗사람은 아래사람을 지배하고 아래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垂直的 關係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덕, 1985).

이와 같은 유교적 삶을 지배하여 온 것이 三綱五倫이다. 유교의 윤리라고 하면 누구나 三綱五倫을 떠올리고, 三綱五倫이라고 하면 一方的 垂直倫理가 되어 上向倫理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런데 三綱(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은 공자의 가르침도 아니고 맹자의 사상도 아니며 중국 漢나라 이후에 나온 것이다(최근덕, 1992).

즉 강(綱)이란 “벼리”라는 뜻이며 벼리는 그물의 여러작은 줄을 모으는 큰 줄로서 위쪽 코를 꿰어 잡아 당기게 되어 있는 굵은 줄을 뜻한다.

본래 儒教는 다름아닌 孔子思想을 바탕으로 한 교리로서 그 핵심은 “仁”(人的 倫理的 人間關係)에 두고 있다. “仁”에 근거한 五倫思想(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君臣有義)은 平等, 互惠, 雙務的 人間關係를 기저로 하는 윤리사상으로서 人間의 尊卑關係나 一方的 從屬關係는 없는 것이다(李乙浩, 1974). 따라서 三綱과 五倫은 相反된 異質的 倫理思想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적 유교윤리라고 하면 三綱五倫이라 하였고 사실상 三綱에 더 큰 비중을 두고(예: 三綱行實圖) 생활화 함으로서 親, 義, 別, 序, 信보다는 忠, 孝, 烈이라는 上向倫理로 서열화되었고, 유교적인 삶과 관련하여 유교정신의 근본을 따질때에도 선뜻 三綱說을 내세우게 되므로서 五倫思想을 逆說的으로 전개되었다는데에 儒教倫理의 問題가 있다(李乙浩, 1974).

近來에 이르러 五倫을 三綱으로부터 완전히 分離하여서 傳統倫理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모두가 전통사상, 우리의 미풍양속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단이기도 하다. 특히 敬老孝親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또 자주 家庭倫理의 중심으로 일컬어 진다.

효(孝) 자는 자식이 늙은 아버지를 업고 있는 형용이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효의 윤리는 더욱 확충이 되어 가까이에는 부모로부터 더 넓혀 조부모 등 조상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달성하는 일로 규정된다. 이렇듯 효는 유교윤리의 소중한 덕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사상은 “인(仁)”에 있는것이다(崔根德, 1992).

2. “仁”-恕

朝鮮後期 우리나라의 사회변동과 사상적 갈등속에서 實學이 탄생하였고, 朝鮮時代 최대의 改革思想家이며 實學의 集大成者인 茶山(1762~1836)은 實踐的 行動哲學의 관점에서 儒教의 精神을 새롭게 전개하였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 추구를 내성적 태도로부터 행동적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人間理解를 시도하였음이 특징이다. 그래서 人間의 道理를 밝히는데 있어서도 그 당위성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實踐的 規範으로 추구하였다는데 있다.

“仁”이란 人人이 겹친 글자로서 二人間의 平等的 倫理임을 천명하고, “恕”思想으로 하여금 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삼게 하였다(李乙浩, 1974; 琴章泰, 1980; 崔根德, 1992).

“恕”는 人間과 人間의 만남의 핵심내용이 된다. 恕에는 추서(推恕)와 용서(容恕)의 두가지가 있는데 용서는 감정적 포용이지만 추서(推恕)는 자신을 수양하고(修己) 만남을 잘 하는 道理로서 善을 행하는 방법이라 하였고 恕의 실천과 확장을 통하여 道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琴章泰, 1980).

좀 더 살펴보면 恕(如心→내마음과 같이한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는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推己及人)는 倫理이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易之思之의 자세로서 修己의 힘이다. - 推恕는 「大學」의 契矩之道(契矩之道)와 같다고 하였다. - 契矩는 상하사방을 恕로서 헤아리는 것이요 곧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이며, 인간의 만남을 선하게 실천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동시에 사회적 영역에서도 실천적으로 확립시킬 것을 추구하고

있다(崔根德, 1992).

“공자”와 “자공(子貢)”의 대화에서

자공 : 한마디의 말로써 평생토록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 : 바로 서(恕)이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것(己所不欲 勿施於人) 이것이恕의 요점이다.

그래서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게 한다(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나온다(崔根德, 1992).

仁道-仁-恕-人倫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의 실천적 윤리로서 孝, 弟, 慈²⁾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人間과 人間의 만남을 실현하는 원리로서의 三綱領의 체계를 재편성하여 恕로서 孝, 弟, 慈를 이루는 平等한 人間關係의 相互倫理로 확립시켰다. 즉 人間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人間的인 理解의 본체라 할 수 있다.

현대는 나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윤리가 진정한 필요하다. 특히 가정은 가족원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임을 상기 할 때 더욱 그러하다.

IV. 家庭의 變化와 倫理的 課題의 探索

현대의 가정은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전통 사회의 가정과는 다른 양상을 갖는다. 그것은 가족원의 정서, 가치관, 윤리, 교육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원의 생활은 그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사회의 분화가 진전되면서 가정 밖에서 특정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그 생활 욕구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킴으로서 가정이 생활 영역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서 오늘날은 個人主義가 높이 평가되면서 제도로서의 가족보다 개인의 관심과 권

익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제도로서의 가족의 의의는 점차 쇠퇴되어가고 있다(최흥기, 1994).

또 인간관계면에서도 전통적인 家父長制的 關係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으며 또 유지하려고 할 때 어려움과 갈등은 커진다. 이는 性平等 理念의 확산과 함께 여성과 처의 권익과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참여의 확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현대 가족은 구조적으로 핵가족화 되었으나 의식적으로는 가부장적 차별원리에 의한 수직적 부부관계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유영주, 1994),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는 더욱 증가하여 전통가정에서 중시하던 가문의식이 자녀를 자신의 분신이나 소망의 실현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과잉통제, 과잉기대, 과잉보호를 형성하여 자녀에게는 병리적 증상을, 부모자녀간에는 불신을, 사회적으로는 자녀이기주의를 낳고 청소년문제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덧붙여서 남아선호로 인한 아들 딸의 차별은 커다란 이중적 갈등과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케 한다(지영숙, 1994).

또 현대가정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은(통계청자료(1990) : 노령화지수는 1970년 7.2→1992년 21.1)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평균 61.1%(통계청, 1993)나 되고 있어서 노인자신은 물론 노인부양으로 인한 부담도 가정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유영주, 1994). 이와 관련하여 고교생을 중심으로 윤리의식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고윤종, 1990) 부모에 대한 효도면에서 孝觀은 좋게 생각하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윤리관념이 아니라 民主的으로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높고 共存意識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루어 볼 때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편리한 상황을 선택하려는 道德的 觀念에서의 老人扶養은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도 부양의 책임을 지지않을 수도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가정내의 폭력,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해체현상등도 증가하고 있어서(가정법원 : 1975년 이혼율 5.5%→1990년 11.32%) 가정의 불

2) 孝, 弟, 慈 : 가장 기본적 윤리. 부모는 자식에 대해 慈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 孝하며, 형은 아우에게 友하고, 아우는 형에게 恭하며, 夫婦, 朋友, 民牧, 사이에도 人倫이 밝혀지고 '仁'은 그 전체라고 하여 恕로서 孝, 弟, 慈하여 '仁'을 이루는 것이다.

안정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의 가정생활 현상에서 볼 때 가정의 윤리체계는 이제 一方的인 片務關係나 가족이라는 當爲性만으로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제 새롭게 전환해야 할 현실에서는 시대적 상황에서의 변화와 수용을 인정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척도를 선택하고 다시 결정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 기준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면 :

이정덕(1985)은 현대 가족윤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평등관계, 감정적 지원관계로, 부모-자녀 관계를 수직적 관계나 단순한 본능이 아닌 理知的 사랑으로, 敬老思想의 기본을 人道主義의 信念으로 바꾸어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다.

곽정희(1988)의 연구에서는 個人的 自我意識이 강한 현대인의 가치관과의 조화와 가족에 대한 '우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倫理體系의 필요성과 함께 敬老孝親, 父子有親, 夫婦有別의 雙務的 義務로 해석을 제안하였다.

고윤중(1990)은 自己中心的 道德心을 共通의 의미 질서의 확립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윤리적 사고와 행동방식이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광규(1991)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윤리철학이 필요하고, 가정교육적 차원에서 남을 존중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개성, 자유, 평등, 경쟁을 강조하였다.

진교훈(1992)은 實踐倫理로서의 가정윤리의 과제로서 어린이보호, 사생활보호와 전통윤리의 덕목으로서 長幼有序, 夫婦有別, 父子有親에 대한 재해석을 지적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현대 가정윤리의 방향은 개인의 존중과 개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윤리체계,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수평적 윤리체계, 그리고 共存의 倫理가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전통윤리를 재인식하고

적용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존재의 역동성과 고유함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가정에서 가족은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친밀감, 소속감과 애정을 경험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에 가족 각자는 외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와 선택과 자기발전을 해야 하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따라서 윤리체계의 형성도 자율성 위에 선 共同體 倫理를 설정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도달한다.

우리는 그동안 共同體倫理라고 하면 기본적인 조건의 검토없이 당위적인 명령처럼 강조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기본적 조건이란 우리의 생활공동체는 이제 理解共同體라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朴淳英, 1984). 다시말해서 자율적인 토대위에서 함께 살아가기위한 규범으로서의 타당성, 그것은 서로의 입장을 양해하는 것이 라던가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 보는것을 가능케하는 마음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논리는 人間에 대한 上下從屬的 原理에서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倫理哲學이다.

결국 自律과 共存과 水平的 對待倫理體系는 따로 따로 분리되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人間에 대한 이해로 부터 出發하여 人間關係속에 작용하는 행위규범으로 파악해야 하는 힘이 필요하고, 어떻게 라는 그 행위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이때 앞에서 고찰한 바 '恕'(자기를 척도로 남을 헤아리는 도리-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古典的 基本倫理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 改革的 倫理體系의 가장 밑바탕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무엇을"이라는 방향설정에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실천윤리적 차원에서 그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데에 큰 意味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범위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과의 관계로,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갖는 人類性의 차원에서 倫理性이 필요하게 되었다. 개인을 존중하되 우리(nos)³⁾와 그리고 모든 생활권도 함께 의식하고 존중하는 倫理革新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서 함께 자리잡아가야 할 生態倫理의 기본적인 목표의 하

나가 된다.

그리고 自律的 人間으로서의 自己開發을 위하여는 특별히 ‘立志’, ‘誠意’, ‘正義’, ‘勇氣’, ‘勤儉’, ‘信義’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현대에서도 개인과 가정의 행위 지침으로 삼아야 할 실천윤리로서 오늘의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茶山의 家庭教育中에서).

「立志」는 自己志向의 마음의 자세로서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건이 됨을 의미한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나은 큰 뜻을 지니는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誠意」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먼저 자신에게 성실할 수 있는 자질을 충하게 인식토록 함이다.

「正義」는 천하에 두가지의 큰 기준이 있으니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이로부터 4등급이 있는데 옳음을 고수하고 이익을 얻음이고, 옳음을 고수하고 해로움을 입을 경우, 그리고 그름을 추종하고 이익을 얻음이고, 가장 낮은것은 그름을 추종하고 해를 보는 경우이다.

「勇氣」는 三德(智, 仁, 勇)의 하나로 무릇 하고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같아지기를 기약한 뒤에 그치는 노력하는 행동을 가르킨다.

「信義」는(信)은 人言이라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고 그 말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 신용이 없으면 수레에 바퀴가 없음과 같다.

「勤儉」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고 儉은 자기몸을 유지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태도로서 勤儉은 財物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V. 結論 및 提言

家庭은 개개인의 人格이 존중되고, 성장발달이 이룩되며, 平等的 同伴者的 關係와 共同體的 相互關係를 통하여 修己安人하는 집단이고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생활터전이다. 이 家庭을 바르고 활기있게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 주어진 倫理的 接近은 그동안 전통사회에서 가정을 굳건히 지탱하여 주었던 倫理體系가 더 이상 현대 가정에서 긍정적으로 자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새로운 倫理體系의 필요와 함께 그의 革新을 위한 모색과정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고자 한다.

지금 우리의 가정은 내면적인 근대화 없이 외면적으로만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이중적 행위규범으로 인한 모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人間觀에 대한 중심적 원리를 바꾸어 주지 않는 한 계속해서 對立的 關係, 利己의 關係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것은 더 큰 긴장과 갈등으로 人間關係를 와해시키므로써 가정과 사회는 부차적인 문제들의 출현이 늘어 날 것이다.

들여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현대와 같은 경쟁사회, 이익사회에서는 더욱 극심함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이 현실에서 서(恕)의 倫理는(恕-孝, 弟, 慈로 仁을 이루는 것.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친다는(推己及人) 윤리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 古典으로서가 아니라 현대가정에서 행위의 형태로써 바뀌어 져야 할 마음의 논리로서 自己 中心的 思考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며, 그의 실천과 확장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윤리의 기본으로 반드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人間社會의 모든 道理가 夫婦의 道에서 始作되어 天地에 이르게 된다는 中庸에서의 뜻을 빌리면 “恕”가 지향하고 있는 平等的 人間關係의 相互倫理의 始作도 夫婦의 倫理에서 부터 성립시켜야 한다는 論理가 나온다.

또한 家庭은 人間을 계발하고 그 독자성을 인정하고 발휘토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立志”, “勇氣”는 현대가 지향하는 自我實現을 위해 더욱 의미있게 인식되어야 할 自主的 價值基準이 되며, “信義”와 “勤儉”은 믿음을 형성하는 사회원리이자 개인의 덕목으로서 깊이 세기고 또 가르쳐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모든 생활권을 함께 존중하고 아끼는 우리意識과 生態倫理의 概念도 家庭倫理의 중요한 목표이자 실천윤리의 하나로 발달시켜야 할

3) Nosism : 이기주의(egoism)의 타과를 위해서 보다 집단적이고 전체성을 지향하는 윤리성의 시각에서 Nosis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함(1993).

것이다.

이제 물질주의와 인간우월에서 비롯된 현대의 負的問題(공해와 환경오염, 범죄, 폭력, 경쟁, 소외...)들을 改善하는 데는 삶의 존엄과 협력의 문제 그리고 삶의 통합과 전체에 대한 책임이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세계관이 필요해 졌고(제 4의물결) 全體論的인 관점에서 主體的으로 선택할 수 있는 道德的 思考와 정신적 힘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부합하는 倫理的 價値를 부활하는 努力이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金丁煥(1983). 全人教育論, 世英社.
- 2) 高潤鍾(1990). 韓國青少年의 倫理意識研究, 건국대, 석사논문.
- 3) 郭貞姬(1988). 韓國家庭倫理의 當面 課題에 關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 4) 琴章泰(1980). 儒教와 韓國思想,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5) 琴章泰(1987). 韓國實學思想研究, 集文堂.
- 6) 朴淳英(1980). 共同體意識과 共同體倫理：韓國人의 倫理觀2, 정신문화연구원.
- 7) 서병숙(1991). 가정학과 윤리,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 8) 손봉호(1991). 가정학과 사회윤리,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 9) 孫仁銖(1987). 韓國人의 價値觀, 文音社.
- 10) 이광규(1991). 가정에서의 倫理教育,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의과제, 아산사회복지재단.
- 11) 이정덕(1985). 한국의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 12) 李乙浩(1974). 茶山學의 理解, 玄音社.
- 13) 유영주(1994). 미래사회와 가정, 대한가정학회 학술대회.
- 14) 유영주외(1994). 가정학원론, 신광출판사.
- 15) 池英淑(1989). 茶山의 家庭教育에 대한 現代의 意義,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19).
- 16) 池英淑(1994). 家庭教育의 現代의 課題(제 3보),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24).
- 17) 泰教勳(1992). 倫理와 價値觀, 韓國人의 倫理思想, 栗谷思想研究所.
- 18) 崔根德(1992). 韓國儒學思想研究, 哲學과 現實史.
- 19) 崔根德(1992). 儒教思想과 倫理, 韓國人의 倫理思想, 栗谷思想研究所.
- 20) 최흥기(1994). 家族政策의 方向과 課題, 峨山, 아산사회복지재단(62).
- 21) 함인희(1993). 21세기의 여성,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한국여성개발원.
- 22) 수전 E, 머턴스 외, 韓榮煥 譯(1994). 제 4물결, 한국경제신문사.
- 23) 今道友信(1993). 21세기에 おける 倫理學, Eco-ethica, 日本家政學會誌 44(6).

가정관리학과 명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 연 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명 자

성균관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기 옥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급진적 변화와 함께 학문의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왔다. 가정학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60년대부터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승격되면서 가정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확대발전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생활분야 중 의류학과영역, 식품영양학과영역은 그 연구대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대부분의 대학이 대상별로 전공학과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가정생활의 나머지 영역, 즉 주거학, 아동학, 가족학, 가정관리학, 가정경제학 분야는 가정관리학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학과로 운영되어 왔다.

여러 영역을 통합한 가정관리학과의 운영은 가정관리학과의 내용구성의 검토, 전공분리 내지 분과나 명칭변경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가정관리학과는 설립 당시부터 이미 두 학과 이상의 특성을 지니고 출발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공의 분리운영, 분과명칭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가정대학설립시기부터 안고 있었다(서울대학교 가

정대학 이십년사, 1989, p33-34). 이처럼 가정관리학과의 교과과정은 지나치게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전문성이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것은 졸업생의 취업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사실상 가정대학 설립과정에서부터 분과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가정관리학과가 단순히 명칭만 변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명칭변경 이전에 영역별 전문성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학부수준에서의 지나친 학과세분화를 지양하고 오히려 세분화된 학과의 통합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교육행정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가정관리학과의 전공영역에 따른 科의 분리신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관리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전공영역을 가능한 수용, 인정하면서 학문의 발전적 추세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의 명칭 모색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가정관리학과의 교과내용과 명칭변경에 관하여는 1980년대부터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 왔다. 즉 현재의 학과명칭인 가정관리학과는 모든 전공영역을 함축성있게 나타내고 있지 않아, 가정관리학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식도가 낮으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학과 명칭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본 연구는 1994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과제로서 1994년 6월 24일 제 17 차 한국가정관리학회 총회에서 발표되었음.

은 것이다. 특히 학문의 전문화 추세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가정관리학과 지원을 기피하려는 경향이져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정관리학과가 살아남으려면 직업에서의 전문적 능력과 가정관리 전공자의 사회적 공헌이 요구된다.

또한 급속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오늘날 가정관리학과에서도 미래지향적 연구와 함께, 이에 적절한 명칭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관리학과와 정체성 확립과 전문화를 위해 각 대학마다 그 실정에 따라 나름대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가 1988학년도부터 소비자·아동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후 지방의 몇몇 대학에서는 가정관리학과와 명칭을 그대로 두고 전공분리를 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가정관리학과라는 명칭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적절한 명칭이 있으면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경향이다(유영주, 이기춘, 문숙재, 1991).

따라서 학회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정관리학과와 명칭변경이나 내용구성, 학과운영 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조사한다.

둘째,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을 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에 관해 실증조사함으로써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셋째, 각 대학의 현행 가정관리학과 교과과정과 재직교수의 전공분야를 고려할 때 학과명으로 적합한 새로운 명칭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상의 연구문제는 응답자의 배경변수(신분, 전공, 연령, 학교소재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

는가 분석하며 가정관리학과 구성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3. 관련연구의 고찰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에 관한 관련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명옥, 유영주(1980)는 사회변화와 함께 발전하는 가정관리학 교육 목표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혁신적으로 편성하고 이에 적합한 과명칭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교 4학년 재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응답자들은 가정관리학과 명칭변경 이전에 과의 전공분리가 시급하고, 과의 분리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 편성과 그에 적합한 명칭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동발달 및 가족관계분야와 주거학을 각각 독립학과로 분리시키고, 가정관리학은 가족발달분야를 공동기초과목으로 하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소비자경제분야, 관리과정분야, 주거환경분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학과의 명칭은 「가족환경학과」로 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이후 대한가정학회(1982) 주관하에 이루어진 가정학 계열학과의 교과과정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의 가정관리학분야를 아동 및 가족학분야, 주거환경분야, 가정경영학분야 등 3분야로 분리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를 통하여 임정빈(1990)은 가정관리학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학과의 명칭과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함을 지적하고 이 두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지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현 체제하에서라도 학과의 명칭을 「가정경영학과」로 변경하고 교과목 명칭인 「가정관리학」은 「가정자원관리학」으로 하여 그 구성과 내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한다는 점이 기업경영이나 가정경영이 동일한 차원이므로 기업경영의 이론이나 기법은 가정경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옥선화(1990)는 기업경영을 가정경영에 적용시키는데 대한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정경영학과로의 명칭변경은 가정관리학 입장에 혼동만 초래할 뿐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설립당시부터 분과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가정관리학과를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물적자원중심의 학과와 인적자원중심의 학과로 학과를 재편성하여 분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영주, 이기춘, 문숙재(1991)가 대학교육협회의 지원으로 실시한 가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학과명칭을 바꾸어 보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학과명칭을 변경할 경우, 「가족환경학과」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족생태학과와 가족자원관리학과를 건의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환경학과로 할 경우 ○전공, ○○전공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전공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관리, 소비자, 가족분야의 내용을 포괄하는 학과 명칭으로 가정관리학과는 적절치 못하고, 세분야를 포괄하는 명칭모색은 불가능하며, 분과가 시급한 시점이라 했다. 학문의 체계상 아동·가족분야와 소비자·관리 분야로 분리되어야 하겠으나, 분과가 여의치 못할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학문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관리학과와 교과내용과 명칭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꾸준한 연구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사회적 요구나 학문발전의 추세에 맞추어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질문지는 신분, 전공, 연령, 학교소재지 등 응답자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4문항, 가정관리학과 학과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4문항, 15개의 새로운 학과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명칭 변경시 반대이유와 찬성이유는 문항은 3개를 순위를 주어 선택하도록 작성되었고, 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학과 명칭에 대한 견해는 5개를 순위를 주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는 본 학회 상임이사 7인으로부터 검증받았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조사에 앞서 가정관리학과 교수 12인, 4학년 재학생 9인, 대학원생 10인, 취업졸업생 8인, 미취업 졸업생 8인 등 총 47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전국 37개 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중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학과명칭을 변경하였고, 충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는 신설학과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질문지는 가정관리학과 학과장에게 연구 취지와 조사방법을 안내하는 서신 및 반송봉투와 함께 우송하였다. 조사대상은 가정관리학과 재직교수,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취업 졸업생, 미취업 졸업생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동일 질문지를 배부한 후 학과에서 수집하여 반송 봉투를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본 학회의 상임이사들이 각각 안면이 있는 학교에 조사 협조를 의뢰하고 반송이 늦은 학교에는 개별적으로 연구자가 추후 협조를 요청한 결과 33개 대학의 가정관리학과에서 총 779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분석이 불가능하게 부실기재된 질문지가 발견되지 않아 회수된 질문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교차분석을 하였다. 배경변수에 따른 학과명칭 개칭여부와 명칭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3개까지 순위를 주도록 되어있는 명칭변경 찬성이유와 반대이유 문항은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을 주어 Recode한 후 각각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¹⁾. 5개까지 순위를 주도록 되어있는 새로운 학과명 문항은 1순위에 5점, 2순

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점, 5순위에 1점을 주어 Recode한 후 각 학과명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순위없이 여러항목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 변 수 | 집 단 | 빈 도* | 백분율 |
|-------|-------------|------|-------|
| 신 분 | 교 수 | 108 | 14.0 |
| | 재학생 | 378 | 48.9 |
| | 대학원재학 | 112 | 14.5 |
| | 취업졸업생 | 94 | 12.2 |
| | 미취업졸업생 | 81 | 10.5 |
| 전 공** | 가족학 | 107 | 14.2 |
| | 아동학 | 76 | 10.1 |
| |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 66 | 8.7 |
| | 가정관리학 | 221 | 29.3 |
| | 주거학 | 85 | 11.3 |
| 연 령 | 전공구분없음 | 200 | 26.5 |
| | 20-29세 | 639 | 82.7 |
| | 30-39세 | 81 | 10.5 |
| | 40-49세 | 42 | 5.4 |
| | 50-59세 | 11 | 1.4 |
| 학교소재지 | 서 울 | 211 | 27.2 |
| | 직할시 | 336 | 43.4 |
| | 지방소도시 | 203 | 26.2 |
| | 군읍면*** | 25 | 3.2 |
| | 계 | 779 | 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변수별로 총 빈도수가 차이를 보임.

**신분에 따른 전공의 분포를 알기 위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전공구분이 없다고 생각되는 재학생, 일부 학교의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이 가족학 또는 가정관리학의 전공에 포함되어 있었음. 본 문항에 있는 가정관리학 전공은 협의의 가정관리학 전공을 의미하고 있으나 현재 가정관리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경우 학과명을 본인의 전공으로 생각해서 응답한 결과라고 여겨짐.

***군읍면 소재지의 응답자가 3.2%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석에서는 이를 지방소도시에 포함시킴.

1) 순위를 응답한 문항의 경우 1차로 교차분석을 하였다. 1차 분석과 Recode한 자료의 분석을 비교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해석과 집단간 비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Recode한 자료분석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응답한 경우는 모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고 1개 항목에 응답한 경우는 1순위로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른 명칭변경 찬성이유, 반대이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과명칭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사용한 후 Scheff의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자료의 통계처리는 고려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Program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는 표 2에 나타나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15.1%가 변경에 반대하고 있었고 84.9%가 명칭변경을 찬성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χ^2 검증결과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이유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응답자에게 찬성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3²⁾에 나타나 있다. 학과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모든 배경변수의 거의 모든 집단에서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를 지적하고 있다. 취업한 졸업생의 경우는 '학과내에 포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현행 명칭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나쁜 것'도 명칭변경을 찬성하는 이유로 지적하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라는 이유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은 대학의 문이 좁은 현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분에 따라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라는 항목과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는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에 대해

표 2. 배경변수에 따른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 () ; %

| 변수 | 집단 | 찬성 | 반대 | χ^2 |
|-------|-------------|-----------|-----------|----------|
| 신분 | 교수 | 87(11.4) | 16(2.1) | 1.37 |
| | 재학생 | 320(42.0) | 55(7.2) | |
| | 대학원재학 | 96(12.6) | 14(1.8) | |
| | 취업졸업생 | 78(10.2) | 15(2.0) | |
| | 미취업졸업생 | 66(8.7) | 15(2.0) | |
| 전공 | 가족학 | 87(11.7) | 18(2.4) | 3.25 |
| | 아동학 | 59(7.9) | 14(1.9) | |
| |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 55(7.4) | 7(0.9) | |
| | 가정관리학 | 184(24.7) | 36(4.8) | |
| | 주거학 | 72(9.7) | 13(1.7) | |
| | 전공구분없음 | 174(23.4) | 25(3.4) | |
| 연령 | 20-29세 | 537(70.3) | 98(12.8) | 5.90 |
| | 30-39세 | 69(9.0) | 9(1.2) | |
| | 40-49세 | 36(4.7) | 5(0.7) | |
| | 50-59세 | 6(0.8) | 4(0.5) | |
| 학교소재지 | 서울 | 183(24.0) | 25(3.3) | 2.87 |
| | 직할시 | 272(35.6) | 57(7.5) | |
| |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 194(25.4) | 33(4.3) | |
| 계 | | 651(84.9) | 116(15.1) | |

여는 대학원 재학생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현행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항목은 역시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50~59세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20~29세의 응답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항목은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 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이유로 지적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가정관리학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가 부족하다.
- 관리라는 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 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 가정관리분야의 협의 개념과 혼동되므로 학과

2) 전체 응답자의 산술평균값은 빈도수가 많은 집단의 값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전체평균을 나타내는 모든 분석에서 응답자 배경변수 중 신분변수의 각 집단의 평균값을 합쳐서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명칭으로 부적절하다.

- 무엇을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이 모른다.
- 가정이라는 명칭이 남학생 진학에 장애가 된다.
- 배우는 내용이 가정이라는 단위에 국한된다.
- 학문의 체계성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 가정관리가 집에 살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3. 학과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

학과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응답자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표 4) 전체적으로 '현행명칭이 가정관리학에 포함된 전공영역을 잘 대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적합한 명칭이 없다', '새로운 명칭을 할 경우 혼란이 온다', '다른 학과와 구별이 안된다'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다른 학과와 구별이 안된다'인데 이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생의 반대 이유가

표 3. 배경변수에 따른 학과명칭 찬성이유

| | | 찬 성 이 유 | | | | | | | | | | | | | | |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변 수 | 집 단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 신 분 | 교 수 | 1.94 | | | 1.76 | | a | 1.84 | | | 2.46 | | ab | 1.89 | | |
| | 재학생 | 1.84 | | | 1.69 | | b | 2.11 | | | 2.24 | | ab | 2.03 | | |
| | 대학원재학 | 1.66 | 2.60 | | 1.21 | 4.13 | c | 2.08 | 0.96 | | 2.54 | 5.00 | a | 2.13 | 2.40 | |
| | 취업졸업생 | 2.10 | | | 1.73 | | abc | 1.96 | | | 2.05 | | b | 2.14 | | |
| | 미취업졸업생 | 2.00 | | | 1.84 | | abc | 2.04 | | | 2.19 | | ab | 1.68 | | |
| 전 공 | 가족학 | 1.68 | | | 1.67 | | | 2.24 | | | 2.41 | | | 1.86 | | |
| | 아동학 | 1.81 | | | 1.77 | | | 2.22 | | | 2.30 | | | 2.07 | | |
| |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 1.92 | 1.51 | | 1.52 | 0.82 | | 1.85 | 1.44 | | 2.46 | 1.52 | | 2.17 | 0.98 | |
| | 가정관리학 | 1.96 | | | 1.54 | | | 2.07 | | | 2.18 | | | 2.01 | | |
| | 주거학 | 1.80 | | | 1.79 | | | 1.90 | | | 2.35 | | | 2.19 | | |
| | 전공구분없음 | 2.01 | | | 1.69 | | | 2.03 | | | 2.26 | | | 1.94 | | |
| 연 령 | 20-29세 | 1.89 | | | 1.64 | | | 2.08 | | | 2.25 | | | 2.00 | | |
| | 30-39세 | 1.79 | 0.83 | | 1.61 | 0.58 | | 1.77 | 1.65 | | 2.49 | 3.21 | | 2.14 | 1.19 | |
| | 40-49세 | 2.03 | | | 1.76 | | | 2.20 | | | 2.44 | | | 1.69 | | |
| | 50-59세 | 2.25 | | | 2.00 | | | 1.67 | | | 3.00 | | | 1.67 | | |
| 학교소재지 | 서 울 | 1.89 | | | 1.66 | | | 2.10 | | | 2.23 | | | 2.14 | | |
| | 직할시 | 1.89 | 0.02 | | 1.64 | 0.05 | | 2.04 | 0.22 | | 2.36 | 1.58 | | 1.95 | 1.42 | |
| |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 1.90 | | | 1.68 | | | 2.04 | | | 2.25 | | | 1.98 | | |
| 신분집단의 평균(순위) | | 1.92(4) | | | 1.65(5) | | | 2.01(2) | | | 2.30(1) | | | 1.97(3) | | |

굵은글씨 : 각 집단별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 $p < .05$ ** $p < .01$
 a) (1) 취업에 장애가 된다 (2)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장애가 된다.
 (3) 사회의 인식이 나쁘다. (4)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5) 학과내에 포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

특히 두드러진다. 학교소재지에 따라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에 차이를 보이는데 Scheff 검증 결과 직할시 소재학교의 응답자와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소재학교의 응답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직할시 소재학교의 응답자가 이 이유를 명칭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은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바꿀만한 논리적 이유가 부족하다', '취업의 문이 좁아진다', '일시적 타협이다', '가장 여성스러운 과를 알릴 수 없다', '명칭만 변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관리학의 본질 해석이 명칭변경보다

더욱 중요하다' 등을 일부 응답자들이 지적하고 있었다.

4. 학과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을 변경할 경우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표 5)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은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이었다. 두 번째로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항목이 지적되었고, '전국의 가정관리학과 명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전공분리'와 '새로운 명칭의 홍보'를 보완점으로 지적한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 배경변수에 따른 학과명칭 반대이유

| | | 반 대 이 유 ²⁾ | | | | | | | | | | | | | | |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변 수 | 집 단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 신 분 | 교 수 | 2.27 | | | 2.44 | | | 1.85 | | | 2.18 | | | 2.00 | | |
| | 재학생 | 2.23 | | | 2.56 | | | 1.96 | | | 1.87 | | | 1.26 | | |
| | 대학원재학 | 1.75 | 0.87 | | 2.22 | 1.48 | | 1.92 | 0.72 | | 2.30 | 0.85 | | 2.50 | 3.78 | |
| | 취업졸업생 | 2.50 | | | 1.85 | | | 2.42 | | | 1.90 | | | 2.00 | | |
| | 미취업졸업생 | 2.00 | | | 2.30 | | | 1.86 | | | 2.11 | | | 2.00 | | |
| 전 공 | 가족학 | 2.00 | | | 2.25 | | | 1.85 | | | 2.07 | | | 3.00 | | |
| | 아동학 | 2.20 | | | 2.36 | | | 1.75 | | | 2.42 | | | 1.50 | 2.48 | |
| |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 2.33 | 1.11 | | 2.33 | 0.70 | | 2.40 | 1.02 | | 2.00 | 1.48 | | 1.33 | 2.48 | |
| | 가정관리학 | 2.47 | | | 2.25 | | | 2.09 | | | 1.80 | | | 1.54 | | |
| | 주거학 | 2.42 | | | 2.71 | | | 1.50 | | | 1.70 | | | 2.33 | | |
| | 전공구분없음 | 1.75 | | | 2.60 | | | 2.00 | | | 2.17 | | | 1.62 | | |
| 연 령 | 20-29세 | 2.18 | | | 2.40 | | | 2.00 | | | 1.98 | | | 1.73 | | |
| | 30-39세 | 2.50 | 0.31 | | 2.50 | 0.56 | | 1.67 | 0.46 | | 2.10 | 0.95 | | 2.00 | 0.10 | |
| | 40-49세 | 2.00 | | | 2.33 | | | 1.67 | | | 3.00 | | | | | |
| | 50-59세 | 2.00 | | | 3.00 | | | 2.00 | | | 1.50 | | | | | |
| 학교소재지 | 서 울 | 2.00 | | ab | 2.14 | | | 2.06 | | | 2.00 | | | 2.00 | | |
| | 직할시 | 2.61 | 6.73 | a | 2.48 | 1.14 | | 1.83 | 0.53 | | 2.06 | 0.05 | | 1.68 | 0.41 | |
| | 지방소도시 | 1.75 | | b | 2.52 | | | 2.00 | | | 2.00 | | | 1.71 | | |
| | 및 군읍면 | | | | | | | | | | | | | | | |
| 신분집단의 평균(순위) | | 2.15(2) | | | 2.27(1) | | | 2.00(4) | | | 2.07(3) | | | 1.95(5) | | |

굵은글씨 : 각 집단별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냄 *p<.05 **p<.01

- a) (1)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 (2) 현재 명칭이 가정관리학과에 포함된 전공영역을 잘 대표할 수 있다.
- (3) 새로운 명칭을 할 경우 혼란이 온다. (4) 적합한 명칭이 없다.
- (5) 다른 학과와 구별이 안된다.

χ^2 -검증 결과 배경변수에 따라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경변수의 집단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보면 재학생과 미취업졸업생, 가정관리학 전공자와 전공구분이 없는 응답자, 20~29세의 응답자, 직할시와 지방도시 소재 학교의 응답자들이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교수, 가족학·아동학·소비자학 전공 응답자, 4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교사자격증을 유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항목을 명칭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학과명칭의 변경은 취업관련

교과목의 개발과 현행 가정관리학과 정원의 30%에 주는 교사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5. 새로운 학과명칭에 대한 견해

가정관리학과와 명칭을 변경할 경우 새로운 학과명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15개의 새로운 학과명을 제시하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과명을 5개까지 순위를 주어 응답하게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학과명은 거의 모든 집단에서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생활과학과,

표 5. 배경변수에 따른 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

| | | 보완되어야 할 사항 ^{a)} | | | | | χ^2 |
|-------|-------------|--------------------------|------------|------------|------------|------------|----------|
| | | (1) | (2) | (3) | (4) | (5) | |
| 변 수 | 집 단 | 빈도* % | 빈도* % | 빈도* % | 빈도* % | 빈도* % | |
| 신 분 | 교 수 | 65 (9.7) | 30 (4.5) | 50 (7.5) | 44 (6.6) | 60 (9.0) | 13.90 |
| | 재학생 | 188 (28.1) | 146 (21.9) | 172 (25.7) | 165 (24.7) | 233 (34.9) | |
| | 대학원재학 | 56 (8.4) | 42 (6.3) | 66 (9.9) | 64 (9.6) | 58 (8.7) | |
| | 취업졸업생 | 42 (6.3) | 30 (4.5) | 51 (7.6) | 48 (7.2) | 50 (7.5) | |
| | 미취업졸업생 | 38 (5.7) | 24 (3.6) | 37 (5.5) | 34 (5.1) | 41 (6.1) | |
| 전 공 | 가족학 | 63 (9.6) | 30 (4.6) | 51 (7.8) | 53 (8.1) | 59 (9.0) | 27.79 |
| | 아동학 | 42 (6.4) | 24 (3.7) | 39 (6.0) | 25 (3.8) | 37 (5.7) | |
| |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 40 (6.1) | 27 (4.1) | 32 (4.9) | 30 (4.6) | 32 (4.9) | |
| | 가정관리학 | 109 (16.7) | 80 (12.3) | 88 (13.5) | 96 (14.7) | 119 (18.2) | |
| | 주거학 | 35 (5.4) | 20 (3.1) | 55 (8.4) | 39 (6.0) | 48 (7.4) | |
| | 전공구분없음 | 93 (14.2) | 83 (12.7) | 103 (15.8) | 103 (15.8) | 134 (20.5) | |
| 연 령 | 20-29세 | 310 (46.5) | 235 (35.2) | 308 (46.2) | 296 (44.4) | 366 (54.9) | 15.08 |
| | 30-39세 | 42 (6.3) | 20 (3.0) | 44 (6.6) | 40 (6.0) | 42 (6.3) | |
| | 40-49세 | 28 (4.2) | 12 (1.8) | 22 (3.3) | 13 (1.9) | 28 (4.2) | |
| | 50-59세 | 8 (1.2) | 5 (0.7) | 1 (0.1) | 5 (0.7) | 6 (0.9) | |
| 학교소재지 | 서 울 | 119 (17.8) | 67 (10.0) | 111 (11.6) | 125 (18.7) | 121 (18.1) | 11.93 |
| | 직할시 | 168 (25.1) | 123 (18.4) | 158 (33.6) | 129 (19.3) | 188 (28.1) | |
| |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 102 (15.2) | 82 (12.2) | 108 (16.1) | 100 (14.9) | 134 (20.0) | |
| 총 계 | | 392 (21.2) | 273 (14.8) | 380 (20.6) | 357 (19.3) | 446 (24.1) | |

굵은글씨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항목 *multiple response 처리로 인하여 빈도수가 증가되었음

- a) (1) 교사자격증을 유지하도록 교육부와 협의 (2) 전국의 학과 명칭이 통일
 (3) 전공분리를 동시에 해야 한다 (4) 새로운 명칭을 홍보
 (5)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 개발

생활경영학과, 소비자환경학과, 가족복지학과와 순서로 2, 3, 4, 5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정환경학과, 가정복지학과, 자원경영학과, 가족자원경영학과, 생활관리학과는 각각 15위, 14위, 13위, 12위, 11위를 나타내어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학과명칭들이었다.

응답자의 신분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인 학과명은 '생활과학과'로서 이 학과명에 대한 선호도는 교수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전공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학과는 '생활관리학과'와 '인간생태학과'로 나타났다. '생활관리학과'의 경우 가정관리학이나 가족학 전공 응답자의 선호도가 높고 아동학이나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전공 응답자의 선호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생태학과'의 경우 아동학 전공 응답자의 선호도가 다른 전공의 응답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학과명칭은 '가정환경학과', '가족복지학과', '생활과학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학과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50~59세의 응답자이고 20~29세의 응답자는 선호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복지학과'의 경우는 40~49세 응답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20~29세의 응답자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활과학과'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20~29세 응답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학교소재지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학과명칭은 ‘가족자원관리학과’, ‘가정환경학과’, ‘인간생태학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관리학과’의 경우는 서울시 소재 학교의 응답자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학과’의 경우는 지방도시 및 군읍면 소재 학교의 응답자가 타지역 소재 학교의 응답자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인간생태학과’의 경우는 서울시 소재 학교 응답자, 직할시 소재 학교 응답자, 지방도시 및 군읍면 소재 학교 응답자의 순서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나머지 학과명칭의 경우는 배경변수에 따라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시된 학과명칭을 첫 단어를 중심으로 분류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정으로 시작되는 명칭

| | |
|----------|----------|
| 가정학과 | 가정공학과 |
| 가정환경복지학과 | 가정자원관리학과 |
| 가정교육학과 | |
- ② 가족으로 시작되는 명칭

| | |
|------------|--------|
| 가족발달학과 | 가족생활학과 |
| 가족 및 소비자학과 | |
- ③ 소비자로 시작되는 명칭

| | |
|---------|---------|
| 소비자학과 | 소비자경제학과 |
| 소비자복지학과 | 소비자아동학과 |
| 소비자경영학과 | |
- ④ 인간으로 시작되는 명칭

| | |
|----------|----------|
| 인간환경학과 | 인간자원학과 |
| 인간생태복지학과 | 인간생활관리학과 |
| 인간발달학과 | 인간생활학과 |
- ⑤ 생활로 시작되는 명칭

| | |
|----------|----------|
| 생활자원경영학과 | 생활환경학과 |
| 생활자원관리학과 | 생활문제연구학과 |
- ⑥ 주거로 시작되는 명칭

| | |
|---------|--------|
| 주거 아동학과 | 주거생활학과 |
| 주거관리학과 | 주거환경학과 |
| 주생활학과 | 주거경제학과 |
| 주거소비자학과 | |
- ⑦ 기 타

| | |
|---------|--------|
| 실내디자인학과 | 전통가정학과 |
|---------|--------|

아동생태학과

이들 학과명칭의 특징은 가정, 가족, 소비자, 인간, 생활, 주거로 시작되는 명칭이 많았고 후반부에는 자원, 환경, 복지, 생태, 생활관리, 경영 등을 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어를 중심으로 학과의 목표와 성격에 맞추어 학과명칭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IV. 요약 및 제언

현행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33개 대학의 가정관리학과 재직교수,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취업 혹은 미취업 졸업생을 포함하여 총 77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의 84.9%가 현행 가정관리학과 명칭을 변경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2)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회의 인식이 나쁘다는 것을 들고 있다. 명칭 변경에 대한 찬성 이유는 일부 배경변수(신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가정관리학과 학과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현행 명칭이 가정관리학과에 포함된 여러 전공영역을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 반대이유는 극히 일부 배경변수(신분,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학과명칭 변경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하고, 현행 학과 정원의 30%에게 부여하는 교사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야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경변수에 따라 보완사항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5) 새로운 학과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명칭은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나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표 6. 비경변수에 따른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학과명칭

| | |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학과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환경학과 | | | 가족성태학과 | | | 가족자원관리학과 | | | 가족자원경영학과 | | | 자원경영학과 | | | 가정경영학과 | | | 가정환경학과 | | | 가정복지학과 | | | 가족복지학과 | | | 생활관리학과 | | | 생활경영학과 | | | 생활과학과 | | | 인간생태학과 | | | 소비자원경영학과 | | |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 | | |
| 변수 | 집단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평균 | F값 | Scheffe | | | | | | | | | |
| 신분 | 교수 | 3.45 | | | 2.87 | | | 3.22 | | | 2.79 | | | 2.70 | | | 2.94 | | | 3.11 | | | 3.27 | | | 3.68 | | | 2.89 | | | 3.08 | | | 2.71 | a | 2.88 | | | 3.52 | | | 4.04 | | | |
| | 재학생 | 2.65 | | | 2.55 | | | 2.74 | | | 2.84 | | | 2.82 | | | 3.48 | | | 2.40 | | | 2.84 | | | 3.13 | | | 2.82 | | | 3.22 | | | 3.52 | | | b | 2.69 | | | 3.07 | | | 3.63 | |
| | 대학원재학 | 3.39 | 2.14 | | 3.13 | 1.96 | | 2.79 | 0.50 | | 2.80 | 0.53 | | 3.08 | 0.57 | | 2.85 | 2.36 | | 1.28 | 1.21 | | 2.55 | 1.46 | | 2.90 | 2.01 | | 2.71 | 0.15 | | 3.02 | 0.41 | | 3.67 | 4.52 | | b | 3.10 | 1.16 | | 3.30 | 0.95 | | 3.76 | 0.78 |
| | 취업준비생 | 2.68 | | | 2.60 | | | 2.95 | | | 3.05 | | | 2.81 | | | 2.58 | | | 3.52 | | | 2.52 | | | 3.65 | | | 2.96 | | | 3.39 | | | 3.85 | | | b | 3.18 | | | 2.91 | | | 3.59 | |
| | 미취업준비생 | 3.00 | | | 3.29 | | | 3.04 | | | 2.44 | | | 2.45 | | | 3.32 | | | 2.29 | | | 2.48 | | | 2.55 | | | 2.83 | | | 3.29 | | | 3.86 | | | b | 2.94 | | | 2.87 | | | 3.93 | |
| 전공 | 가족학 | 2.97 | | | 2.97 | | | 2.40 | | | 3.29 | | | 2.60 | | | 3.30 | | | 2.08 | | | 2.85 | | | 3.57 | | | 3.23 | | | 3.16 | | | 3.18 | | | 2.74 | | | 2.95 | | | 3.84 | | |
| | 아동학 | 3.08 | | | 3.08 | | | 2.64 | | | 2.50 | | | 2.64 | | | 2.60 | | | 2.75 | | | 2.88 | | | 3.00 | | | 2.91 | | | 3.11 | | | 3.63 | | | 3.75 | | | 2.88 | | | 4.00 | | |
| | 가정경제 및 소비자학 | 2.83 | 0.44 | | 2.83 | 0.44 | | 3.50 | 2.19 | | 2.80 | 0.99 | | 3.17 | 0.89 | | 3.00 | 1.59 | | 3.58 | 1.18 | | 2.50 | 0.22 | | 2.33 | 1.83 | | 2.47 | 2.52 | | 3.09 | 1.96 | | 3.88 | 1.31 | | 2.57 | 2.69 | | 3.64 | 1.90 | | 3.43 | 0.74 | |
| | 가정관리학 | 2.76 | | | 2.76 | | | 3.16 | | | 2.83 | | | 2.63 | | | 3.23 | | | 2.41 | | | 2.76 | | | 2.89 | | | 3.38 | | | 3.49 | | | 3.51 | | | 2.71 | | | 2.96 | | | 3.60 | | |
| | 주거학 | 2.36 | | | 2.36 | | | 3.50 | | | 2.67 | | | 2.42 | | | 2.80 | | | 2.50 | | | 3.00 | | | 3.00 | | | 2.73 | | | 2.67 | | | 3.80 | | | 2.67 | | | 2.81 | | | 3.84 | | |
| | 전공구분없음 | 2.72 | | | 2.72 | | | 2.72 | | | 2.54 | | | 3.09 | | | 3.55 | | | 2.36 | | | 2.69 | | | 2.96 | | | 2.96 | | | 3.12 | | | 3.60 | | | 3.00 | | | 2.97 | | | 3.78 | | |
| | 연령 | 20-29세 | 2.83 | | | 2.70 | | | 2.81 | | | 2.84 | | | 2.82 | | | 3.29 | | | 2.32 | a | 2.72 | | | 2.97 | a | 2.84 | | | 3.19 | | | 3.64 | | | 2.90 | | | 3.03 | | | 3.71 | | | |
| 30-39세 | 3.50 | 2.92 | | 3.00 | 0.68 | | 3.19 | 1.47 | | 2.18 | 1.23 | | 2.50 | 0.29 | | 2.85 | 0.63 | | 2.82 | 4.51 | abc | 3.05 | 1.51 | | 3.33 | 2.98 | ab | 2.82 | 0.01 | | 3.26 | 0.08 | | 3.04 | 4.74 | | 2.74 | 0.67 | | 3.63 | 1.68 | | 4.06 | 1.07 | | |
| 40-49세 | 3.50 | | | 2.92 | | | 3.33 | | | 3.40 | | | 2.33 | | | 3.00 | | | 3.78 | | b | 2.57 | | | 4.17 | | b | 2.88 | | | 3.42 | | | 2.50 | | | 2.79 | | | 3.00 | | | 3.40 | | | |
| 50-59세 | 2.83 | | | 3.50 | | | 4.50 | | | 2.67 | | | 3.00 | | | 2.67 | | | 4.00 | | c | 4.50 | | | 3.00 | | ab | 3.00 | | | 3.20 | | | 2.33 | | | 2.00 | | | 4.50 | | | 5.00 | | | |
| 학교소재지 | 서울 | 3.14 | | | 3.09 | | | 3.25 | a | 2.60 | | | 2.42 | | | 2.95 | | | 2.50 | | | 2.82 | | | 2.90 | | | 2.79 | | | 3.24 | | | 3.44 | | | 3.18 | a | 3.00 | | | 3.76 | | | | |
| | 직할시 | 2.96 | 0.28 | | 2.81 | 2.93 | | 2.53 | 3.75 | b | 2.84 | 0.81 | | 2.90 | 2.08 | | 3.17 | 1.92 | | 2.34 | 3.67 | 2.71 | 0.11 | | 3.06 | 1.10 | | 2.99 | 0.89 | | 3.15 | 0.11 | | 3.63 | 0.63 | | 2.85 | 4.15 | ab | 3.08 | 0.45 | | 3.79 | 0.27 | | |
| | 지방소도시 및 군읍면 | 2.9 | | | 2.99 | | | 3.00 | | ab | 2.67 | | | 3.00 | | | 3.51 | | | 3.00 | | | 2.80 | | | 3.34 | | ab | 2.74 | | | 3.20 | | | 3.52 | | ab | 2.48 | | b | 3.20 | | | 3.62 | | |
| | 신분집단의 평균(순위) | 3.02(7) | | | 2.85(10) | | | 2.95(9) | | | 2.78(12) | | | 2.77(13) | | | 3.08(6) | | | 2.59(15) | | | 2.78(14) | | | 3.06(5) | | | 2.84(11) | | | 3.20(3) | | | 3.52(2) | | | 2.96(8) | | | 3.13(4) | | | 3.79(1) | | |

큰 글씨: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항목 *p<.05 **p<.01

났다. 그 다음으로 생활과학과, 생활경영학과, 소비자환경학과, 가족복지학과의 명칭은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학과명칭이었다. 학과명칭에 대한 선호도는 일부 명칭에서만 일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기타 자유응답으로 인한 새로운 학과 명칭의 경우 첫 단어에 가정, 가족, 소비자, 인간, 생활, 주거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명칭의 후반부에는 자원, 환경, 생태, 생활관리, 경영 등의 단어들 사용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현행 가정관리학과와 명칭은 응답자의 배경이나 학교소재지 등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변경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명칭이 학문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회의 인식이 나쁘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학과명칭의 변경에 대해서는 가정관리학과와 구성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변경할 경우 새로운 명칭에 대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부각되지 못하고 각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관리학과와 새로운 명칭에 대한 학회차원의 공감대 형성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학과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려면 명칭을 변경하는 시도가 학교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각 학교마다 자신들의 학과에서 어떤 사람을 키워내야 되겠다는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교육목표에 따라 교과과정을 구성한 후 이러한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학과명칭을 교수, 재학생, 졸업생들의 합의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명칭변경과 더불어 교과과정을 취업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해야 하며 기존에 취득이 가능한 교사자격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과의 명칭을 학교별로 고안할 경우 학과에 포함된 여러 전공영역을 모두 학과명칭에 나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

된다. 그리고 어떤 전공영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하는 문제와 전공영역을 어떤 단어로 표시해야 하는 문제는 학과의 재직교수의 전공에 따라 미묘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도 크리라 사료된다. 학과의 발전을 위한 학과명칭의 개칭작업이 학과 내의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학과의 정체성을 혼미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관리학과와 견해를 비교적 고르게 수렴하여 그 경향을 분석한 것으로 의의는 있으나 해석의 편의상 평균을 산출하는 등 통계적 분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학과와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써 그 기능을 다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강해원(1980). 가정학의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18(2) : 57-62.
- 2) 대한가정학회(1982). 가정학 계열 학과의 모형, 교육과정 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2) : 1-35.
- 3) 서울대학교 가정대학(1989).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20년사.
- 4) 옥선화(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에 대한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205-208.
- 5) 유영주 · 이기춘 · 문숙재(1991). 가정관리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제 91-8-104 호.
- 6) 이기열(1989). 가정학 본질의 재조명. 대한가정학회지 27(4) : 197-220.
- 7) 이기영(1990). 사회변천에 따른 가정관리학의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28(4) : 30-33.
- 8) 임정빈(1990). 가정관리학과 구성에 관한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199-204.
- 9) 장명옥 · 유영주(1980). 가정관리학과 교과과정 편성 및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5 : 1-56.

알 림

■ 투고 관련 사항

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2 권 1 호부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투고규정에 어긋난 원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출판계획

1995년도부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4회 발간합니다.

| 권·호 | 원고 마감일 | 출판 예정일 |
|--------|---------------|------------|
| 13권 1호 | 1995년 1월 16일 | 1995년 3월말 |
| 13권 2호 | 1995년 4월 15일 | 1995년 6월말 |
| 13권 3호 | 1995년 7월 15일 | 1995년 9월말 |
| 13권 4호 | 1995년 10월 16일 | 1995년 12월말 |

3. 원고제출처 : 1110-745 한국가정관리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8번지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내
TEL : 760-0512, 0507
FAX : 760-0512(수동)

4. 투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연락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지에 써 주십시오.
5. 논문제출시 접수비는 우체국 온라인 구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온라인> 012260-0020412 지 영 숙
6. 가정관리학회지 제 9 권 2 호부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가', '수정후가', '수정후 재심', '부'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후 재심'인 경우는 심사위원의 확인후 그 다음 호에 실리게 됩니다.

■ 일반사항

1. 회원중 주소나 직위 변동이 있으신 분은 학회 간사 앞으로 곧 연락 바랍니다.
2. 본 학회의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입회비 5,000원, 연회비 15,00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단체회원의 경우 :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30,000원).
<우 체 국> 012260-0020412 지 영 숙
<상업은행> 112-08-306681 지 영 숙
연회비를 납부하신 경우에만 그 해의 학회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본 학회 회원으로 2년 동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